

'군산 속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군산대 박물관, 25일 사진작가 신철균의 작품 특별기획전시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정기문)이 '지역 속으로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다양한 전시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군산대 박물관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19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오는 25일 오후 2시 특별기획전시 '흑백으로 깨낸 기억, 군산' 展을 개관한다.

흑백으로 깨낸 기억, 군산 展은 1960년대 이후 군산의 풍경과 사람을 필름에 담은 사진작가 신철균(90세)이 50여 년 동안 촬영한 그의 모든 사진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면서 기획되었다. 이 특별전에서는 군산의 기억 등 작품성과 역사성이 뛰어난 사진 50여 장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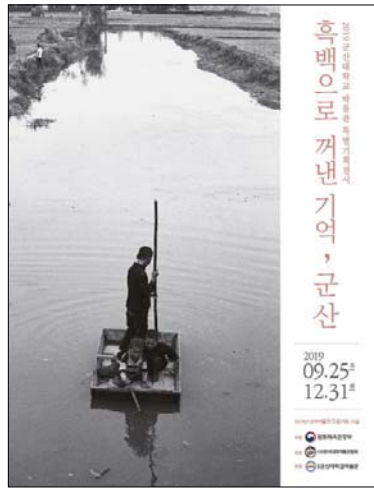
전시 개막식에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신철균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토크콘서트 '김차동과 함께하는 신철균의 사진이야기'가 진행된다. 또한 박물관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역 속으로 한걸음 더' 가기 위한 기획 프로그램

으로 '주제가 있는 갤러리 토크'를 3회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 전시와 함께 깊이 있는 군산이야기가 콜라보 형식으로 전개돼 갤러리 토크는 군산을 오롯이 공유하는 시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철균 사진작가는 "이번 전시가 이번 생에서 마지막 전시가 될 것 같다"면서 "대형으로 인화된 사진으로 군산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이 이루어져 기쁘고, 무언가 큰 것을 남겨놓고 가는 것 같아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기획전과 관련하여 정기문 박물관장은 "신철균 선생님의 사진전과 함께 토크콘서트, 갤러리 토크 등이 이어져 이번 기획은 종합 선물세트와 같을 것이다"면서 "접근이 어렵게 느껴지던 대학박물관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물관 전시 관람 및 행사 참여 문의는 군산대학교 박물관(469-4191~2)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순창군 홍보대사인 우습 오케스트라의 공연 사진.

논두렁 오케스트라 공연으로 기대감 UP

26일 순창군 적성면 괴정리 일원서 개최

순창군이 논두렁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예고하고 있어 큰 화제를 낳고 있다. 공연은 오는 26일 적성면 괴정리 일원 논그림 인근에서 펼쳐질 예정으로 순창군 홍보대사인 우습 오케스트라가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적성면 괴정리 일원에 벼로 조성한 논그림이 곧 추수를 앞두고 있어,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에 추수를

축하하는 음악으로 농요나 전통국악이 활용됐다면, 이번에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를 영농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논두렁과 오케스트라의 만남이 어떤 새로운 효과를 일으킬지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연 개최 소식에 방송가에서도 높은 취재열기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잘 갖추어진 대형 공연장 위주로 선보이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논두렁에서도 들을 수 있

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지역사회도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논그림은 지난 6월초 조성을 시작으로, 7월에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유명세를 떨치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다. 논그림으로 관광효과를 특별히 본 군은 이번 공연에도 주변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이번 공연은 전국에서도 찾기 힘든 색다른 공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을 농업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참좋은 순창'으로 꾸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시간을 잃고, 기억을 잃기 시작하자... 연극 '사랑해요, 당신'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내달 4일 무료 공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10월 4일 오후 7시30분 제12회 치매극복의 날 특별공연으로 연극 '사랑해요, 당신'을 무료로 공연한다.

연극 '사랑해요, 당신'은 서로 사랑하지만 항상 결에 있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아간 평범한 부부의 이야기를 그린 공연으로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과 오늘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해주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김제공연에서 남편 '한상우' 역에는 장용 배우가 아내 '주은애' 역에는 오미연 배우가 역할을 맡아 평범한 일상을 지탱해주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할 것이다.

관람권 예매는 9월 24일 오전 8시부터 김제문화예술회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 순 무료 배부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시민생활문화제 개최... 끼와 열정 무대 위에서 '뽀뽀'

21일 동산동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진행

익산시는 오는 21일 동산동 유천생태습지공원에서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의 축제인 제4회 익산시민생활문화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이명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콩닥콩닥 내안의 생문동'을 주제로 지역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끼와 열정을 무대 위에서 뽐내고 이웃, 친구 등과 함께 나누고 즐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30여 개 동호회가 참여해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풍기타, 색소폰, 한국

무용, 장구난타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친다.

또한 서예, 캘리그래피, 악기 만들기 체험 및 전시부스 운영,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 등을 운영하여 관람객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이명준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내 생활문화예술동호인들인 서로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전북 생활문화의 본고장 익산이 생활문화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 전화(837-0717)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iksanlovelife.modoo.at>)를 참고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동리문화사업회, 동리대상 후보자 공모... 내달 1일까지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제29회 동리대상 후보자를 오는 10월 1일까지 공모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리대상은 고창군(군수 유기삼)과 (사)동리문화사업회(이사장 이만우)가 동리 신재효 선생의 문화예술사적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했다.

관소리 진흥에 업적을 남긴 창자(唱者), 고수(鼓手), 관소리 연구자 또는 관소리진흥에 기여한 자(법인포함) 중 한 명을 선정해 매년 시상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관소리 부문 최고 권위의 상이다.

후보자 추천은 국·공립 국악관련 기관·단

체, 관소리 관련단체, 국악대회(훈격, 대통령상) 주관단체에서 가능하다. 동리대상은 심사위원회 비공개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제29회 동리대상 시상식은 11월 6일 오후 2시 동리국악당에서 열리며 수상자와 제자 등이 꾸미는 축하공연도 함께한다.

고창군은 관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의 유업을 계승하고 관소리 발전을 위해 전국 어린이 관소리 왕중왕 대회, 관소리 체험 등 관소리 첫 수도(首都)이자 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